

## ■ ( 언론 동향 ) 2022.12.14. "식품저널" 보도

### ○ 북한, 올해 식량작물 생산량 451만톤...전년보다 18만톤 감소

#### - 농진청, 2022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

올해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451만톤으로, 지난해 469만톤보다 18만톤(3.8%)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북한 지역의 기상 여건, 병충해 발생 및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 자료, 위성영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올해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작물별 생산량은 쌀 207만톤, 옥수수 157만톤, 감자·고구마 49만톤, 밀·보리 18만톤, 콩 18만톤, 기타 잡곡 2만톤이다.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9만톤(4.2%)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벼 생식생장기(7월) 온도가 낮고 일사량이 부족해 알곡 수가 많지 않았으며, 등숙 후기(9월)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알곡이 끝까지 여물지 못해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는 작년보다 2만톤(1.3%)이 감소했다. 생육 초기(4~5월) 평년보다 강수량이 부족해 생육이 늦어졌고, 생육 중기~등숙기(6~8월) 집중호우와 햇볕 부족으로 개화·수정 장애, 등숙 불량 발생,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자·고구마는 작년보다 8만톤(14%)이 감소했는데, 봄 감자는 덩이줄기 형성·비대기(5월) 가뭄으로 충분히 자라지 못했고, 수확기 많은 비로 제때 수확하지 못한 감자가 부패해 수확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됐다. 여름 감자 또한 덩이줄기 형성·비대기 장마와 수확기 태풍 영향으로 병충해 피해와 부패가 심해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밀·보리는 작년보다 2만톤(12.5%) 증가했다. 생장 초기 가뭄, 수확기 집중호우, 이삭 싹나기 피해로 단위면적 당 수량은 감소했으나,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30% 확대돼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콩은 작년보다 1만톤(5.3%) 감소했다. 5월 가뭄으로 파종이 늦어지고 싹이 늦게 트여 초기 생육이 불량했으며, 개화기(7월)와 꼬투리 생육 기간(8월)에 비가 많이 내려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북한 지역의 여름작물 생육기간(5~9월) 평균기온은 작년보다 0.4도 낮은 19.7도였으며, 강수량은 1066.1mm로 327.1mm 많았고, 일사량은 2774.9MJ로 114.2MJ 적었다.

농진청 국제기술협력과 김황용 과장은 "올해 북한 지역의 기상 조건이 식량작물을 생산하기에 전반적으로 불량해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나명옥 기자 >